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
----------	-----

2019. 3. 8.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서동학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2019년 3월 8일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서동학 의원)

가. 제안이유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다문화예비학교의 지정·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과 우리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함양과 한국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에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 충북의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학생 수를 보면 2016년 4025명(초 2,892명, 중 600명, 고 533명), 2017 4568명(초 3317명, 중 670명, 고 581명), 2018년 에는 5,047명(초 3,727명, 중719명, 고601명) 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어능력이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수행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확대와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기초학습능력, 학교 생활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제15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2조(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u>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p>
<p><u>제12조(생략)</u></p>	<p><u>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u></p>
<p><u>제13조(생략)</u></p>	<p><u>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u></p>
<p><u>제14조(생략)</u></p>	<p><u>제15조(현행 제14조와 같음)</u></p>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6.3.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
-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2015.12.1.>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제목개정 2015.1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